

제 48 호 환경적 장애 2

창의력 교육을 위해서는 여유와 여백이 있는 학습 환경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한국인이 반드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에서 옮겨온 한 절입니다.

“창의력 위주 교육이란 학생들을 더 열심히 몰아치는 교육이 아니다. 창의교육이란 학생들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사고의 숨통을 틔어 주는 교육이다.

“물질 위주의 산업화 시대에는 사물로 공간을 채우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허기진 배를 음식으로 채우고, 빈 공간은 책상, 의자, 텔레비전, 자동차 등등으로 꽉 채운다. 산업 시대에는 교육도 채우는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백지에다 그림을 그리듯 교육이란 텅 빈 두뇌에다 지식을 채워 넣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공책에 뽁뽁이 받아쓰고 깨알 같은 문제가 가득한 시험지를 푸는 것을 공부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물건들은 지천으로 널려 있다. 정보도 무한정으로 깔려 있다. 대량 생산으로 인해 물건 값이 떨어졌듯이, 정보화 시대에는 지식(데이터) 그 자체의 값은 폭락했다. 그러나 지식을 정보로 처리하는 능력은 더 한층 중요해졌다. 공대 지식의 반감기는 5년이라고 한다. 5년이면 이제까지의 정보량의 두 배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머리에 아무리 넣어도 다 담을 수 없는 무한한 정보의 시대에 외우기 위주 교육은 곧 쓰레기를 수집하는 교육이다.

목이 타서 물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수돗물을 틀어 주는 데 지식을 비유한다면 지금은 쭈쭈 나오는 수돗물이 아니고 펄펄 쏟아져 나오는 소방전의 물이다. 정보의 홍수, 정보의 바다다.

“이런 바다 속에서 익사하지 않고 유유히 헤엄치고 배를 띄워 다니려면 생각할 여유가 있어야 한다. 창의교육이란 생각할 여유를 주는 것이다. 문제를 백만 번 풀어야 한다는 것은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재빨리 푸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외국 물품을 비슷하게 베껴야 할 때나 필요한 능력이다. 이제 우리만의 고유 물품을 개발하려면 문제 하나를 놓고 이리저리 며칠씩 곰곰이 생각해 보는 여유와 여백의 교육이 필요하다.“